

2014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성경의 중심—
갈라디아서,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

메시지 14

골로새서

(2)

하나님의 뜻

(2)

한 목표—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이자
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

성경: 골 1:13, 18, 24, 2:19, 3:10-11, 15, 4:11, 15-16

I.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지시는 것이다 — 골 1:18, 24, 2:19.

A.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— 골 1:18.

1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, 곧 삼일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이들로 구성된 실체이다 — 엡 1:22-23, 4:4-6.
2. 몸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. 만일 몸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치에 맞지 않고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— 고전 12:12, 27, 1:2.
3.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— 골 1:18, 2:19, 엡 4:15-16.
 - a.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머리 아래서 지체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사는 것이다.
 - b. 몸의 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머리 아래 있어야 하고 머리를 우리의 생명과 주요 대상과 우리의 전존재의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 — 골 1:18, 2:19.
 - c.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의 첫번째 원칙은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— 엡 4:15.
 - (1) 머리를 향한 몸의 유일한 의무는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제안이 없이 다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— 요 21:20-22, 행 13:1-4 상.
 - (2) 머리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몸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결정한다. 만일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어떤 지체들이나 혹은 개별적인 무리들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없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나 교통을 가질 수 없다 — 행 9:10-19.

B. 몸은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란다 — 골 2:19.

1.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라심, 곧 하나님의 더해지심과 증가에 달려 있다 — 엡 4:16.
2. 하나님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장을 주신다 — 엡 3:16-17 상.

C.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, 곧 그리스도 자신께로 부름을 받았다 — 골 3:15.

1. 그리스도의 화평은 몸인 새 사람의 하나이다 — 엡 4:3.
 2.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— 골 3:15.
- D.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의 인식을 가져야 하며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— 고전 12:25-26, 롬 12:15.
- E.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많은 지방들 안에서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.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특정한 지방에 있는 표현이다 — 골 4:15-16, 엡 4:4, 계 1:4, 11.
- II. 하나님의 뜻은 새 사람인 교회를 가지시는 것이다 — 골 3:10-11.**
- A.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사람을 가지시는 것이다 — 창 1:26.
- B.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사람이다 — 엡 2:15, 4:24, 6:10-20.
1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한 새 사람이다 — 엡 2:15, 4:24, 3:9.
 2.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— 골 1:18, 3:4, 갈 2:20, 엡 3:17 상.
- C. 한 새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와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— 엡 3:17 상, 갈 2:20.
1. 교회는 한 새 사람이며 이 한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— 골 3:10-11.
 2. 한 새 사람을 위해서 옛 사람의 인격은 반드시 제쳐져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— 롬 6:6, 갈 2:20, 엡 4:22, 24, 3:17 상.
- III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를 가지시는 것이다 — 골 1:13, 4:11.**
- A. 그리스도는 왕국 안에서와 왕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왕국은 오늘날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— 요 3:3, 5, 15.
1.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다스림을 위한 생명의 영역인 그분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— 요 3:5, 15:1-8, 16, 26.
 2.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 실재가 있으며 이 실재는 신성한 생명에 속한 생활이다 — 마 5:3, 8, 20, 6:33, 7:21, 롬 14:17.
- B. 그리스도는 왕국 안에서와 왕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왕국은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— 골 1:12-13.
1.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며 표현이다. 그러므로 아들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다 — 요일 5:11-12.
 2. 우리 자신이 있는 그 왕국은 오늘날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역이다 — 요 1:1-2, 5, 7, 4:8, 16.
 3.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랑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. 주님의 다스림과 규제 아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생명을 가진 빛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— 골 1:13, 마 7:13-14.
 4.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 생활을 갖는다 — 계 4:11, 골 1:9, 12, 4:12.